

##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공간의 미학 - 창문과 거울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손 승 희

I

창문은 공기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을 뜻한다. 문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는 아니지만, 빛을 투과시키고 바깥 날씨를 전한다. 단어의 본래 성격상 어떤 경계 면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창문은 보통의 경우 두 영역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있듯이, 비유적으로 창문은 인식의 주체가 세상의 정보를 얻거나 외부 세계를 향한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열다섯 개의 소설이 한 권으로 묶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이라는 작품집에 창문이란 단어가 마흔 두 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은 20세기 초 아일랜드(Ireland)의 더블린(Dublin)이란 특정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창문이 지닌 그러한 매개체로서의 간접성을 아이의 들여다보는 시선과 어른의 내다보는 시선을 통해 잘 살려내고 있다. 콘라드와 오스틴(Conrad and Osteen)은 창문의 역할을 인물의 갈망이나 감금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과거와 미래의 이중노출 혹은 중첩의 두 가지로 요약한다(70). 주인공 아이가 “희미하게 불 켜진 네모진 유리창”(the lighted square of window: D 9)을 보면서 밤마다 그 창문을 향해 마비(paralysis)라는 단어를 되뇌어 보는 「자매」(“The Sisters”)의 도입부는 아이가 창문 안에서 진행되는 일, 즉 신부의 죽음에 조만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죽은 사람들」(“The Dead”)의 마지막에서 주인공 가브리엘(Gabriel)이 “유리창에 와 닿는 눈 소리”(D 223)에 창문을 바라봄으로써 비롯되는 눈 덮인 세상의 비전은 실현 여부를 모호하게 남겨 놓고 있지만 그의 서부로의 여행을 암시한다. 어쩌면 가브리엘이 신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한 눈 소식을 창문 너머로만 확인한 채 잠으로 빠져드는 장면은, 문 밖으로 나가 직접 눈을 맞지 않는 주인공의 한계를 창문의 간격에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첫머리에 「자매」를,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책의 시작과 마무리를 닫힌 창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독자 역시 그 둘 사이의 단편에서도 자주 나오는 창문을 통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상 경험과 인식의 틀로서 『더블린 사람들』을 총괄하는 모티프를 발견한다. 이것은 더블린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대상화의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마비의 주제가 창문의 이미지로 가시화되었다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는 주인공의 자의식이 작품의 제목에 포함된 자화상의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다. 창문은 앞의 두 작품의 연결 목에 있는 「죽은 사람들」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거울과 함께 『율리시스』(Ulysses)에 편재해 있는 응시의 시선으로 연결된다. 창문이 탈출의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면, 거울은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자기투영(self-reflection)을 통해서 내면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런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창문과 거울의 상징성을 통해서 조이스의 공간의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1914년, 조이스의 첫 번째 소설 작품 『더블린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대로 출

판되기까지 조이스와 출판업자가 주고받은 편지글에는 작가 자신이 밝힌 창작 동기, 취지, 방식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랜트 리차즈(Grant Richards)에게 보낸 1905년 10월자 편지에서 조이스는 최초로 더블린을 세계에 선보이는 작가로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더블린 사람들』의 제목과 함께, 소재로 삼은 더블린이란 도시를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어떤 작가도 더블린을 세상에 선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 . .] 아울러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못하지만 ‘더블린 사람들’이란 표현은 세계 다른 유럽 대도시의 “이르테면, ‘런던 사람들’이나 ‘파리 사람들’같은 표현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로 와 닿는 면이 있습니다. [. . .] 사람들도 제가 더블린 사람들의 이야기 전체에 감동기 바라는 독특한 부패의 냄새를 기꺼이 감지하려 들겠지요. (SL 78-79)

파리나 런던에 버금가는 역사와 크기를 가진 도시 더블린의 위상을 살려내는 도시 소설을 야심차게 기획한 조이스가 이 편지에서 설명을 유보한 더블린의 사람들의 생활상은 더블린이라는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특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출판업자에게 보낸 1906년 5월자 편지에서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창작 의도와 작품 주제를 알리고, 이런 아일랜드 정신문화사 저술에 동원된 문체의 성격을 상술한다.

저는 우리나라 정신사의 한 장을 기록하겠다는 취지로 작품을 썼고, 세계 마비의 중심처럼 느껴진 도시 더블린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 . .] 대부분 속된 모습 그대로 꼼꼼하게, 보고 들은 내용을 감히 개조하거나 왜곡하면 뻔뻔스런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록해 왔습니다. (SL 83)

여기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사회를 조망하는 스펙트럼과도 같은 작품집의 창작 방식은 “용의주도하게 비천한 문체”로 요약된다. 즉 실제의 속된 모습 그대로 치밀하게 더블린 구석구석 마비의 현장을 가감 없이 가차없이 옮겼다는 것이다.

작품집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블린 사람들』은 지역성이 배어 있는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나중에 더블린 사람들에 관한 다른 작품, 즉 더블린 도시를 배회하는 인물의 18시간의 이동 경로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올리시스』를 썼을 때, 작가는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져도 작품이 남아

서 그 지리적 위치를 재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Budgen 67-68). 이와 같은 작가의 확신에 찬 주장은, 더블린의 과거-현재-미래를 내다보는 큰 규모의 기획을 대변해 준다. 애지중지하는 고국의 수도 이곳저곳에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부패의 양상을 여과 없이 실어내는 『더블린 사람들』의 묘사에는 작가의 현실 고발적인 성향도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 유형을 등장시키고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많은 『더블린 사람들』이 출간되었을 때, 작가의 감정이입 없이 인물의 상황 그대로를 담담하고 냉혹하게 펼쳐 보이기에 초기 비평가들에게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작품으로 읽히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에서 자연주의 소설에서처럼 철저히 도덕적인 판단이 유보된 채 사실적인 지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사회학자의 사례 연구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인물 유형이 제시되었다고 해도, 이 작품집이 도시 전체를 감도는 사회 부패상의 반영라든지, 마비된 환경에 굴복하는 인간의 생물적 한계의 인식, 혹은 사회 각계각층의 마비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더블린에 관한 사회학적 보고서 같은 작품집 목차에 포함된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이란 조사 대상이 발견된다. 『더블린 사람들』에는 더블린 사례 연구라면 배제되어야 할, 사건 제목의 ‘가슴 아픈’이란 어구가 반어적으로 들리는 내용이 실려 있다. 신문의 기사의 부제에서 빌려 온 제목이면서도 동시에 이야기 전체의 제목이라는 점에서 “인용의 인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건뿐만 아니라 더피 씨(Mr. Duffy)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병리학적 의미의 ‘증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Schneider 201).

한편, 자연주의 작품의 인간 군상들처럼 환경 결정론적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기엔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개별적인 인물이 열악한 환경에 굴복하기보다 생업에 적응해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진흙』(“Clay”)의 하급 세탁부 마리아(Maria)는 마치 동화 속 인물처럼 소개되고, 그늘진 구석을 찾기 어려운 인물로 형상화됨으로써 오히려 독자의 연민을 부른다. 『가슴 아픈 사건』에서 은행원 더피 씨와 교제를 시작하는 중산층 부인 시니코 여사(Mrs. Sinico)가 갈 등하는 국면은 유전적인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성 역할에 대한 견해가 충돌하는 가부장제 사회 문제에 더 가깝다. 『더블린 사람들』의 인물이 영국의 군국적 존재와 사회 경제 체제 앞에서 공모와 저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남겨져 있었다고 보는 비평적 시각에서, 시니코 여사는 남성적 가치의 내면

화에 협조하지 않고 항거하는 여성 인물로 부각된다(Trevor Williams 452).

다른 한편, 그런 사회에 있을 법한 인물의 유형성을 드러내는 점에서 사실주의 소설의 성취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인물의 자각이 곧 사회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회 전체가 부패에 마비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물 개개인의 전형성을 통해 독자에게 느껴지는 점은, 사회 개혁을 통해서 과거를 동경하고 예전의 총체성을 복원하려는 의지가 아니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추억이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복귀나 공포의 굴레로 작용한다. 등장인물들은 더블린 지역의 개선이 아니라 탈출을 염원한다. 예컨대 『에블린』(“Eveline”)에서 사춘기 여주인공은 과거 어머니가 아픈 마지막 밤을 회상하다가 서글픈 환영에 붙잡혀 몸서리치게 된다(D 40). 그리고 『애러비』(“Araby”)의 1인칭 주인공 아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허영심에 쫓기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감정은 후회와 분노에 다름 아니다(D 35).

앞서 논의한 대로 조이스의 관심은 『더블린 사람들』을 두고 사회의 마비 상태를 반영하거나 인간 조건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고발하는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색 조사, 관찰 기록, 현장 고발 식의 한 마디로 통일되기 어려운 단편소설집, 그 너머에서 작가는 마비 현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답은 이 색다른 형식의 더블린 리포트가 마비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 배열 순서를, 맨 앞에 『자매』부터 맨 뒤에 수록된 『죽은 사람들』까지 유년기-사춘기-성인기-공생활의 네 단계에 맞춰 정했다고 한다(SL 83). 그리고 그 이전, 『애러비』를 단편집에 추가하는 시점에 동생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작품 배열 순서를 소개할 때 유년기에 속하는 세 단편을 ‘나의’ 유년기 이야기들(stories of my childhood)로 분류한 적도 있다(SL 77). 창문이란 단어는, 공생활을 제외한 앞의 세 시기 중 1인칭 서술 시점으로 전개되는 작가의 유년기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창문의 직접적인 언급은 『자매』와 『애러비』, 그리고 사춘기의 『에블린』의 세 작품에 『더블린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고, 성인기의 『가슴 아픈 사건』과 공생활의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총 40여회의 3/4을 차지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창문의 비중은 잦은 출현에 반영된 작품의 공간적인 구도와 구성상의 분위기를 주도함을 의미한다.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쉬쉬하던 신부의 죽음을 둘러싼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아라비아 물품 시장 애러비(Araby)를 동경하던 소년 시절의 회상에서, 그리고 사춘기 처녀 에블린이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yres)행 배를 타고 떠나려던 장소와, 가슴 아픈 사건의 발생지와 더피 씨의 거주지를 구획 짓는 경계에서, 또한 만찬 연설과 부부 대화를 둘러싸고 가브리엘의 의식에 여러 방식으로 어른거리는 창문의 존재에 주목해 본다. 『더블린 사람들』의 통일된 주제를 더블린의 마비 증상에서 찾을 때 창문의 시선에 포착되는 요소로, 『자매』의 병, 『애러비』의 구속, 『에블린』의 쇠 난간, 『가슴 아픈 사건』의 빈 양조장,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경치 화면을 들 수 있다(Salvagno 28). 다음 장에서 논의의 초점은 마비된 더블린 사회를 촬영하듯이 옮긴 더블린의 조감도에서, 20세기 초 아일랜드-더블린의 건축 양식상 창문의 위치와 형태가 궁극할 정도로 빈번히 보이는<sup>1)</sup>, 창문의 본래 기능과 거기에서 연상되는 창문 이미지의 상징성에 놓일 것이다.

### III

작가 자신의 편지글을 통하여 알려진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의 주제와 4단계 구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집 내 수록된 개별 작품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양한 읽기 방식이 시도되어 왔다. 그런데 『더블린 사람들』의 단독 논의로 책 분량에 이른 비평서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조이스의 작품 세계가 더블린을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작가의 자서전적인 요소가 짙게 드리워 있다 보니, 조이스의 초기 작인 단편집을 별도로 논의해서 책 한 권의 분량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조이스 관련 저작물 중 『더블린 사람들』을 통괄하는 연구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이 출판되어 나왔다. 『더블린 사람들』을 라캉으로 읽

1) 더블린의 건축 양식에서 창문의 특징적인 모양을 『더블린 사람들』 논의에 언급한 비평으로, 『죽은 사람들』 논의 중에 그레타(Gretta)가 창 너머 추억으로 떠올리는 죽은 연인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가 앓았던 폐렴과 당시 더블린의 창문 양식을 연결하면서 “대형 미닫이 창문 형태(large sliding windows)”를 지적한 부분이 있다. 본 논의에서 구체적 언급은 생략함. Sara Marsh, “Consumption, Was it?": The Tuberculosis Epidemic and Joyce's "The Dead," *New Hibernia Review* (15.1) 2011, 119.

어넌 레너드(Leonard)의 1993년 책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와, 『더블린 사람들』의 서술 전략 논의에 초점을 맞춘 벤스톡(Benstock)의 1994년 책 *Narrative Con/Texts in Dubliners*가 그 중에 포함된다. 1990년대에 더블린 사회에 대한 사례 연구, 관찰 기록 및 현장 고발의 종합적인 양상을 띤 『더블린 사람들』이 조이스의 여성관 논의의 주요 근거 자료로 부상하면서, 1996년 잉거솔(Ingersoll)의 젠더 비평서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가 나오기에 이른다. 그리고 1998년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는 여러 인접 학문을 활용해서 『더블린 사람들』을 두고 주제별 접근이 아니라 단편제목 논의 등 특정 관심사별 논의를 엮어 낸다. 21세기에 들어와, 조이스 출판 백 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더블린에서 나온 책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에는 프롤리(Frawley) 편집으로 『더블린 사람들』의 위치 재정립을 포함, 주제별 작품별 논의가 종합적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의 교육 현장의 관심사에서 비롯되어, 편집자 머하피(Mahaffey)에 의해 주도된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작품별 학제적 공동 작업이 2012년,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문의 모티프와 관련해서, 2012년 책의 『애러비』 논의에 나온 콘라드와 오스틴의 창문의 성격과 “틀 잡기(framing)” 개념을, 2004년 책에서 영화적 기법을 『더블린 사람들』 논의에 적용한 키스 윌리엄스(Keith Williams)의 “극적 근접촬영(dramatic close-ups)”(155)의 개념과 함께 활용한다. 영화의 내면 구도와 근접촬영은 서술의 초점과 시간의 양상을 공간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다. 또한 『더블린 사람들』의 창문에 담긴 탈출의 염원과 관련해서, 잉거솔의 성별화 비유 논의는 남녀별 동선의 차이를 시각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을 진행하면서, 창, 문, 거울, 그림 등 “틀이 많이 나오는(filled with frames)” 『더블린 사람들』을 두고 『애러비』의 “창문이 그림이 되고 거울이 되는 과정(Windows become pictures become mirrors)”을 확장해서 적용할 만하다(Conrad and Osteen 70). 이렇다 할 사건이 발생하기보다 인물의 자의식적인 심리 묘사로 구성된 『더블린 사람들』은 창/문과 거울의 상징성을 통해서 작가가 설정한 미학적 공간에 접근할 만한 작품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창문의 존재 의미는 『자매』의 첫 장면에 암시된 대로 아이의 의식 속에서 마비라는 단어와 직접 연결된다. 단편집의 첫머리 비중을 뒷받

침하듯이 「자매」는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더블린 사람들』의 개별 작품 중 ‘창문’의 빈도수가 제일 높다. 단편집 전체에서 창문 이미지의 활용도를 소개라도 하듯 「자매」는 일상적인 용도에서 자연스럽게 창/문의 비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창문 논의의 폭을 1인칭 서술자 아이의 눈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공해 준다. 비유권대 「자매」는 다른 『더블린 사람들』 작품에 등장하는 창문 이미지에 접근하는 통로, 일종의 ‘창문’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창문은 특별할 것이 없는 “불 켜진 네모난 유리창”(D 9)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자매」의 창문 이미지를 뜯어보면 창문의 위치는 플린(Flynn) 신부의 집, 시간적인 배경은 밤, 모습은 불 켜진 상태, 그리고 모양은 네모로 밝혀진다. 창문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나’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어슴푸레하고 은은한 불빛이다. 분석 결과 나온 요소에 주목하면 보통 창문의 모습에서 더블린 사회와 『더블린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발견할 수 있다. 창문에 어린 불빛은 닫힌 창문을 전제하고, 창문을 닫음으로써 집안과 집밖의 경계면을 설정한다면, 밖에 홀로 선 외로운 아이가 대면하는 격리된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한편, 창문을 닫아서 드러난 네모난 모양은 네모틀 안에 대상을 가둘 수 있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시키면서 생각의 틀을 상정한다. 창문으로 내다보는 방향과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양 방향의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매개 영역에 창틀이 있다.

깨진 성배 사건을 둘러싼 플린 신부의 죽음을 다룬 「자매」에서 창문은 신부의 죽음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나타난다. 신부가 죽기 전 창문을 통해 어슴푸레한 불빛 너머 마비를 떠올린 아이가 죽은 신부와 지낸 시절을 그리 위해서 찾아가는 경로에 창문이 다시 집중되어 나온다. 죽은 신부 집의 원래 건물 묘사, 낮에 길을 건다가 본 연극 광고가 붙어 있던 위치에 이어, 죽은 신부 상가의 주변 묘사에서 표현된 창문은 또한 자연스럽게 ‘문’과 함께 언급된다. 죽은 신부의 집은 원래 “포목점이라는 막연한 이름으로 등록된 아담한 가게”로, “평일에는 ‘우산 수리’라고 쓴 팻말이 창문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상장 달린 조화가 문고리에 리본으로 매여 있었다”(D 11-12). 그리고, 마침내 상가 2층 막다른 방의 문으로 안내 받은 아이가 입관된 신부님을 보고 ‘미소 짓고 있는 환상’을 떠올리기까지 아이의 동선 곳곳에서 문과 창이 병치되어 나타난다.



안에 들어가 신부님 모습을 뵈고 싶었으나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발길을 돌려 햇빛 비치는 쪽을 따라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상점 창문에 붙은 연극 광고를 모두 읽어 나갔다.<sup>2)</sup> (D 12)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로 발길을 돌린다.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아이의 한계를 창과 문의 대조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어서 빛을 반사하는 창문을 배경으로 아이에게 열린 문 방향이 제시된다. 저녁은 부패의 색깔을 암시하는 갈색이 섞인 금빛 마비가 창유리에 반사되어 퍼지는 모양으로 시각화된다.

저녁에 아주머니는 나를 데리고 상가를 찾아갔다. 해가 진 뒤였으나, 서향집들의 창유리는 거대한 구름층의 황갈색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 . .] 아주머니는 손짓으로 2층에 올라가 보겠느냐고 물어본 다음 [. . .] 층계를 [. . .] 할머니 [내니]는 층계참에서 멈춰 서고는 우리에게 앞으로 내쳐 가라고 막다른 방의 열린 문 쪽을 가리켰다.

나는 발뒤꿈치를 들고 들어갔다. [. . .]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기 관 속에 누워 미소 짓고 있는 환상이 떠올랐다. (D 14)

창문에서 맴돌던 아이가 마침내 열린 문 쪽으로 들어가 죽은 풀린 신부와 대면한다면, 『자매』의 뒷부분에 밝혀지는 대로 일라이저(Eliza) 할머니는 잠긴 본당을 열고 들어가 죽음을 앞둔 풀린 신부를 만난다.

“[. . .] 결국 서기 말대로 본당을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열쇠를 찾아 본당 문을 열고 [. . .] 제임스를 찾으러 등불을 들고 들어갔더니만 [. . .]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멀쩡하게 뜬 눈으로 혼자 웃는 것처럼 고해소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지 뭐예요.” (D 18)

복사 소년이 성배를 깬 사건 이후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 풀린 신부의 상태는 아이에게 배제된 부분으로, 소위 어른들의 세계에서 정리된다. 1인칭 서술자 아이의 시선 뒤에 어른들의 목소리로 조심스레 사건을 전달하는 기법으로 『자매』는 1인

2) 제임스 조이스 저. 이종일 역. 『더블린 사람들』. *Dubliners* by James Joyce. 『세계문학전집』 307. 서울: 민음사, 2012. 이후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인용문 번역은 기본적으로 이 책에 의거함.

칭 화자의 서술에 빠진 시간을 매우면서 아이의 시선을 받쳐 준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발견한 ‘혼자 웃는 것처럼 고해소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아있던 플린 신부의 실제 모습’을 아이가 관 속의 신부에게서 연상한 ‘미소 짓고 있는 환상’과 비교해 보자. 서술은 실제와 환상의 두 차원과, 생전과 사후의 다른 시간대 사이를 연결하는 궤도에 놓인다. 이처럼 『자매』에서 아이와 어른이 ‘들여다 본’ 결과가 겹치면서 대조되는 장소: 관 속과 고해소, 신부의 사후와 생전의 고독하고 작은 공간에 꼼짝 못하고 갇힌 형편이 두 시선의 연계로 드러난다. 돌이켜보아 아이가 신부의 죽음을 앞두고 닫힌 창문 너머 떠올렸던 ‘마비’는 육신과 영혼의 경직 상태를 함께 내다본 진단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둠 속 불빛 어린 창문을 통한 아이의 시선과 연계된 ‘마비’의 독백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얻는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유년기 소설 중 『자매』 다음으로 ‘창문’이 자주 등장하는 작품은 『애러비』인데, 흥미롭게도 불 켜진 창과 죽은 신부의 집, 그리고 성배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매』의 아이가 실제 신부의 시신을 보고 “커다란 두 손에 성배가 쥐여” 있고, “신부복 차림으로 근엄하고 육중하게 누워” 있다고 서술한 것과 달리(D 14), 『애러비』의 주인공 아이는 “한 무리의 적을 뚫고서 성배를 고이 모시고 가는 모습”을 상상한다(D 31). 자기가 좋아하는 맹견(Mangan)의 누나를 성배와 동일시하면서 한 소년의 연정이 시끄러운 시장거리의 소음에서 여인을 지키는 낭만적인 기사 이미지를 끌어내기에 이른다. 여기에 『자매』의 깨진 성배를 대비해 보면, 『애러비』에서 누나와의 유치한 연애도 부서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K. Williams 157-8). 따라서 『자매』에서 마비의 주제로 맺어졌던 불 켜진 창과 죽은 신부의 집 사이의 연결 구도가 흩어지는 『애러비』에서 서술의 초점은 사랑하는 누나에게 고정화(focalization)되는 경향이 있다. 신부가 죽고 그 집에 살게 된 『애러비』의 아이에게 죽은 신부의 집은 관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D 29)이고, 안쪽 응접실에서 빛소리가 “깨진 창 하나를 통해 들릴 뿐”이고, “멀리서 등인지 불빛 어린 창인지 반짝였다”(D 31)는 배경에 그친다.

『애러비』는 서술자 아이를 가슴 뛰게 하는 맹견의 누나를 향한 시선을 따라서 창과 문의 병치가 『자매』보다 더 대립적으로 전개된다. 누나의 출현 지점은 “누나가 사는 어두운 집”(D 33), “문간 층계”(D 30), 계단 “난간”(D 32)으로 집약된다. 『애러비』의 아이는 누나가 문간 층계에 나오면, 저녁에는 그늘에 숨어 누나의 시

선을 지켜보고, 아침에는 내 모습을 숨기려 응접실 창가에 누워서 뛰는 가슴으로 누나의 모습을 좇는다.

거리로 돌아오면 부엌 창에서 나오는 불빛이 지하실 출입구들을 훤히 밝히고 있었다. [. . .] 어쩌다 맹건의 누나가 저녁 먹으라고 동생을 불러들이기 위해 문간 층계에 나오면 우리는 그늘에 숨어 누나가 거리를 이리저리 훑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D 30)

‘문간’과 ‘그늘’에 이어서, 다음의 구도에서 보듯이 ‘문간’과 ‘창가’의 연결에도 ‘문간 층계’를 향한 아이의 일방적인 추종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문간 층계의 누나를 보는 아이는 몸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누나를 지켜보는 아이가 고의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행위로서 보는 주체를 유령처럼 만들어 맹건의 누나를 대상화하는 양상이 분명해진다(K. Williams 157).

나는 아침마다 앞쪽 응접실의 바닥에 누워 맹건 누나네 문을 바라보았다. 내 모습을 들켜지 않도록 새시에서 3센티미터도 안 되게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말이다. 누나가 문간 층계에 나오면 가슴이 뛰었다. [. . .] 갈색 형체를 줄곧 눈으로 좇다가 [. . .] 아침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 . .] 그 이름만 떠올려도 피가 어리석게 용솟음치는 것이었다. (D 30)

『애러비』의 집 그늘과 응접실 창가는 아이가 맹건의 누나를 숨어서 지켜보는 장소이고, 아이들을 찾으러 나왔을 때 맹건의 누나가 나타나는 장소는 문간 층계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찾으러 나오지 않고 ‘누나가 집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숨었던 아이의 반응에 변화가 생긴다. 아이는 숨었던 곳에서 나와 누나 집 층계를 올라가서 불빛과 함께 누나를 본다.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누나가 남아 있는 경우엔 으스스한 곳을 빠져나와 맹건네 집 층계를 하릴없이 걸어 올라갔다. 누나가 우리를 기다릴 때, 뼈죽이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에 누나의 몸매가 뚜렷한 윤곽을 짓고 있었다. (D 30)

아이가 창가와 구석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데도 상대는 문틈으로 불빛의 도움을 받는 최선의 경우에마저 윤곽 이상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애러비』의 살아 있는 맹건의 누나는 『자매』의 죽은 신부처럼 작품을 전개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죽은 성직자에 관한 소문보다 살아 있는 여인에 이끌리는 열정이 이야기의 생동감과 구심력에서 앞서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 그것은 『자매』의 아이를 포함해서 등장인물의 관심이 시종일관 플린 신부를 중심으로 놓이는데 비해서, 『애러비』에서는 다른 등장인물은 아이에게 무심하거나 방해가 되는데 아이 혼자 맹건의 누나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관찰 분석되는 플린 신부와 달리, 맹건의 누나는 1인칭 서술자이며 주인공인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 외에 독자에게 알려지는 면이 거의 없다. 누나의 모습은 주로 문간 층계에 출몰하는 갈색 형체로 불빛에 비친 그림자 현상처럼 주어진다. 마침내 맹건의 누나가 “애러비에 갈 거냐고”(D 32) 처음 말을 걸어오던 날, 『애러비』의 소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난 누나의 모습조차 불빛에 의존해서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누나는 난간 못 하나를 잡고 머리를 내 쪽으로 숙였다. 우리 집 문 반대편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곡선을 그리는 누나의 하얀 목에 내려앉아, 그 위에 늘어뜨려진 머리칼을 비추고, 그 아래로 난간 위에 놓인 손을 비추었다. 불빛은 [. . .] 속치마의 흰 테두리를 비추었다. (D 32)

물론, 맹건의 누나가 사는 어두운 집은 『애러비』에서 누나의 묘사에 불빛이 동원되어야 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누나 대신 저녁 바자에 가기로 한 당일마저 차가운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몸매의 윤곽, “내 상상력이 빚어낸 갈색 옷의 형체뿐”(D 34)으로 만족해야 하는 점은 아이 혼자의 서술과 형상화의 한계로 남는다.

『애러비』에서 ‘나’의 관심은 ‘이름만 들어도 피가 어리석게 용솨음치는’ 맹건의 누나에 대한 사랑으로 온통 쏟아져 있다. “어리석음(follies)”(D 32)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철없는 경험은 곧바로 교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랑의 열병으로 이어진다. 깨진 창을 통해 어스름 저녁 빛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한 안쪽 응접실에서 아이는 열정적으로 사랑타령을 쏟아낸다.

눈앞이 아예 안 보이다시피 했고, [. . .] 내 모든 감각이 숨어 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 . .] 두 손바닥을 떨리도록 꼭 쥐고 ‘오, 사랑! 오, 사랑!’ 하며 하염

없이 중얼거렸다. (D 31)

『애러비』의 아이가 되뇌는 단어는 ‘마비’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데, “누나의 모습은 낭만과는 아주 분위기 동떨어진 장소에서도 나를 따라”다니면서(D 31) 이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킨다. 사실 아이는 누나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이 누나를 눈으로 좇고 있다. 이처럼 맹목적인 사랑의 포로가 된 주인공 아이는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그 심리를 그려내는 “누나의 갈색 형체를 눈에 넣고 다닌다.”(D 30)는 아이의 서술은 일방적인 대상화의 위험을 알아채고 있다(K. Williams 157). 사실 『애러비』의 서술자는 처음부터 결말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작품의 처음에 나와서 무심한 듯 배경을 소개하면서 작품의 복선이 되는 단어를 던져 놓는다. 노스 리치먼드 거리(North Richmond Street)는 “막다른”(blind) 길로, 주인공 아이는 “정방형 터”(square ground)에 사는 옆집들과 동떨어진 채 그 ‘막다른’ 골목 끝 빈 집에서 살며, 그 거리의 다른 집들은 “갈색의 동요 없는 얼굴로”(with brown imperturbable faces) 마주 보고 있다(D 29). 이와 같은 서술자와 주인공의 틈새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좁혀진다. 『애러비』의 주인공의 창가에서 시작된 맹견 누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따라 콘라드와 오스틴이 연결 짓는 ‘창문-그림-거울 과정’이 적용된다(70).

이제 애러비 풍물장의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아이가 자신이 사랑의 이름 아래 빠져 있던 마비의 현실을 직면할 시간에 이른다. 자신을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도 성배를 나르듯이 여인을 받들던 기사로 상상하던 아이는, 같은 중세를 배경으로, 그러나 다른 장터를 통해서 여인에 홀린 기사의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마치 존 키츠(John Keats)의 『무자비한 미녀』(“La Belle Dame Sans Merci”)에서 여인에게 홀려서 넋을 잃고 떠도는 중세 기사들처럼 피폐해진다. 비실체적이고 낭만에 치우친 아이와 맹견의 누나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는 마치 동방의 이국적인 애러비의 거리감이 자아내듯, 깊이 없는 대화 장면과 불 꺼진 바자 공간에서 ‘객관적 상관물’을 발견한다. 아이는 자기 마음 깊숙이에 뿌리박은 마비 의식을 깨치고 허상을 발견해서 대면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 깜깜한 속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허영심에 쫓기다 꼴불견이 되고 만  
 풍수 같은 내 모습에 두 눈이 참담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D 35)

아이가 겪는 경험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기능은 서술 내용과 서술 행위의 분리를 통한 서술자의 회상 시점으로 부여된다. 즉 『애러비』의 마지막 장면에서 ‘불 꺼진 회랑’을 매개로 이야기 전체를 어린 시절의 사랑 놀음으로 이야기하는 대상화의 순간에 시차와 함께 발생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사춘기 이야기 중 창문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에블린』에서 3인칭 시점의 여주인공 에블린(Eveline)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창문의 경계를 통해 더블린의 안과 밖을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는 『에블린』은 마비된 사회를 살아가는 사춘기 여성의 도피의 염원과 여행의 시도, 그리고 실제 마비를 일으키는 좌절의 과정을 펼친다. 첫 장면에서 주인공 에블린은 집 창가에 앉아 저녁의 땅거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다. 정체된 삶을 벗어나려다가 마비를 겪고 무력해지는 사춘기 처녀 에블린은 창가에 앉은 피곤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처녀[에블린]는 창가에 앉아 저녁이 한길을 엄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는 유리창 커튼에 기댄 채였고 콧구멍 속에는 먼지 낀 크레톤 천의 고약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처녀는 피곤했다. (D 36)

첫 장면은 빅토리아 시대 흔히 창가에 앉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사랑에 번민하는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이다. 에블린이 고민하는 문제는, 한길 집 문간에 나타난 멋진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된 프랭크(Frank)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배를 타고 더블린을 떠나서 그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미래의 설계이다.

그녀는 실제로 노스월(the North Wall) 부두 역까지 나갔고, 함께 갈 남자 친구와 떠날 배를 보면서 해방된 내일을 꿈꾼다. 불 꺼진 선창에서 배의 윤곽을 보면서 희망에 부른다.

역은 갈색 짐을 든 군인들로 꽉 찼다. 활짝 열린 창고 문 사이로, 현창에 불빛을 내며 부두 옆에 정박해 있는 배의 시커먼 몸짓이 흘깃 보였다. [. . .] 지금 가면, 내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 . .] 배에 프랭크와 함께 타고 있으리라. (D 40)

그러나 막상 배에 오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프랭크만을 떠나보낸 채 마치 부두에 묶인 배처럼 그 자리에 남게 된다. 공교롭게도 탈출 비상구는 영국 군인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망할 기회를 막는다(민태운 28). 그러나 의지하는 도망자 한 사

람은 이미 철책 너머 뛰쳐나갔고 따라오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데도 에블린은 쇠 난간만 움켜잡고 안 된다고 부르짖는다.

“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처녀의 두 손이 쇠 난간을 미친 듯이 꼭 움켜잡았다. 처녀는 파도에 휩싸여 한마디 고뇌의 비명을 질렀다!

“에블린! 에비!”

청년은 철책 너머로 뛰쳐나가 처녀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처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 . .] 어찌할 바 모르는 짐승처럼 맥이 풀려 있었다. (D 41)

『에블린』에서 여주인공은 선착장에 가서도 ‘널따란 가건물 문으로 부듯가의 검은 배가 보이는, 불빛 비친 선창 쪽으로 건너가지 못한 채’ 난간만 움켜잡고 표정 없는 시선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남는다.

에블린이 더블린을 떠나지 못한 원인을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켜서 발을 묶는 마비의 도시 더블린의 만성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지역 경계를 넘는 행위를 금기시한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에블린이 배를 타고 건너가지 못하는 한계를 설명하기도 한다(Salvagno 5). 그러나 프랭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서 배를 탔고, 에블린 아버지 친구인 신부는 멜버른(Melbourne)에 살러 갔다. 에블린이 미지의 영역, 동경의 땅을 앞두고 감옥 같은 일상에 주저앉게 되는 것은 더블린 사회 속의 여성적 한계라 보인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은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그레타와 결혼을 행동에 옮기지만, 에블린은 죽은 어머니의 위력에 눌려 더블린 탈출의 동반자 프랭크를 따라가지 못한다.

탈출을 앞두고 에블린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에블린』의 첫 장면을 반복하면서 거리의 풍금소리를 매개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었지만 처녀는 유리창 휘장에 머리를 기댄 채 먼지 낀 크레톤 천 냄새를 들이마시며 창가에 눌러앉아 있었다. [. . .] 어머니한테 했던 약속, 될 수 있는 대로 오래도록 집안 살림을 잘 보살피겠다고 한 그 약속을 환기시키는 것은 어떤 일일까. 어머니가 아프던 마지막 밤이 생각난다. 그때도 처녀는 현관 건너편의 감갑하고 어두운 방에 있었는데[. . .].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어머니의 인생, 흔해 빠진 희생만 하다가 결국 미쳐 버리고 만 그 인생의 서글픈 환영이 처녀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마법을 걸어왔다. [. . .] 몸서리가 쳐졌다. [. . .] 탈출해야 해! (D 39-40)

집 떠날 에블린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족이란 제도가 짓누르는 책임감이다. 변화를 꿈꾸던 한 처녀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딸의 위치이다. 에블린은 추억이 아니라 악몽처럼 현재를 지배하는 과거의 위력에 눌린다. 여기에는 과거의 파편화된 의식이 통합되지 못하고 후회로 밀려오면서 안타깝게도 현재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상징적인 시간의 혼합 기제가 작용한다. 에블린이 쇠 난간을 움켜잡은 채 움짱달짝 못하는 「에블린」의 마지막 장면은 과거에 사로잡혀 마비된 의식에서 현재의 욕망을 깨우려고 의식이 분열될 만큼 몸부림치다가 몸이 굳어지고 현재의 선택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여성 인물들은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는 시도를 실행에 옮길 방안을 자주적으로 찾기 어려운 더블린의 마비된 사회 현실에서 대체로 자유롭지 못하다. 「에블린」의 여주인공처럼 「가슴 아픈 사건」의 시니코 여사도 더블린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그를 둘러싼 바깥세상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지된 상태의 시니코 여사와는 대조적으로 남편 시니코 선장(Captain Sinico)은 더블린과 네덜란드(Netherlands) 사이를 왕래하는 상선의 선장으로서 더블린 밖을 자유롭게 다닌다(D 110). 시니코 여사는 열 여섯 나이에 음악 교습을 하고 있는 그녀의 딸보다도 더 제한된 영역에서 살아간다.

더피 씨와 교제 중에도 더피 씨가 시니코 여사 쪽을 밀회 장소로 삼아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라서 마비의 도시 더블린 북판에서 살고 있는 시니코 여사로서는 이동 범위가 좁다. 더구나 더피 씨와 교제가 시작된 장소인 음악당에서가 아니라 그녀 집의 어두운 방에서 음악을 듣게 됨으로써 시니코 여사는 딸과 함께 가던 음악회에 갈 기회도 않는다. 시니코 여사는 더피 씨와 에밀리(Emily)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사적인 관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교제는 중단된다. 그 후 숨 막히는 더블린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시니코 여사는 외출을 했다가 더블린 밖인 킹스타운(Kingstown)에서 오는 열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다.

한편 「가슴 아픈 사건」의 더피 씨는 마비를 초래하는 여러 사회관계에서 스스로 격리시킬 목적으로 정한, 더블린 교외 채플리조드(Chapelizod)의 집에서 더블린의 바깥쪽에서 창문을 통해 더블린 안쪽을 바라본다.

제임스 더피 씨가 채플리조드에 사는 것은 자신이 시민으로 속한 도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기 때문이고 더블린의 다른 교외는 또



두천박하고 현대적이며 걸만 번지르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피 씨는 낡고 음산한 집에서 살았는데, 창밖으로 폐업한 양조장이 들여다보이거나 위로는 더블린을 받치고 있는 얇은 강이 흰히 내다보였다. (D 107)

『가슴 아픈 사건』의 더피 씨가 소개되는 첫 부분은 『더블린 사람들』에 유일한 경우로, ‘제임스 더피 씨’의 이름과 성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Saint-Amour 243). 그리고 『에블린』의 에블린이 더블린의 안쪽에서 창문을 경계로 바깥세상을 바라보는 방향과는 달리, 『가슴 아픈 사건』의 더피 씨는 더블린의 바깥쪽에서 창문을 통해 더블린 안쪽을 바라본다. 또한 그의 집 위치는 『애러비』나 『에블린』에서 지향하던 동쪽 방향이 아니라 더블린에서 서쪽 방향에 있다.

더피 씨는 더블린 사회에서 마비를 초래하는—「자매」의 종교, 『애러비』의 사랑, 『에블린』의 가족이 연상되는—여러 요소에서 벗어나 은거하듯 살아가는데, 더피 씨와 교제 중인 시니코 여사의 거주지가 더피 씨가 피하고 싶었던 더블린의 시에 속해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교제가 낡은 비극이 채플리조드 집에서 창문을 통해 경치를 바라보듯 시니코 여사를 정해진 틀에 넣어 대상화한 더피 씨의 한계와 맞물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피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떴고 창밖으로 음울한 저녁 풍경을 내다보았다. 빈 양조장 옆으로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 . .] 이렇게 끝나다니! (D 115)

『가슴 아픈 사건』의 처음과 “가슴 아픈 사건”의 부제와 함께 신문에 보도된 사건을 읽은 후 창밖으로 보이는 경관에 더블린의 빈 양조장 건물과 강이 다시 나온다. 반복 언급되는 빈 양조장에 주목해서, 술김(spirit)이 빠진 양조장을 보는 더피 씨와 술김에 철로를 횡단한 시니코 여사를 대비해 볼 수 있다(Benstock 77). 술을 멀리하고 자로 잔 듯 살아가는 바른 생활 더피 아버지씨의 창틀로 술에 의지해서 살게 된 시니코 여사의 속사정이 보였을 리 없다.

작가가 마비의 주제를 다루면서 네모진 창 의 구속력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보면, 창 의 불빛으로 신문을 읽는 더피 씨의 모습에 이중의 틀을 상징할 수 있다.

더피 씨는 옆에 달린 주머니 밖으로 황갈색 <메일>지의 모서리가 삐죽 고개를 내민 두툼한 짧은 외투를 꼭 여민 채, [. . .] 11월의 황혼이 깔린 길을 걸어

했다. [. . .] 집에 이르자마자 침실로 올라가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희미해져 가는 창 의 불빛으로 그 단락을 다시 읽었다. [. . .] 단락 내용은 이랬다. (D 113)

창문과 신문의 교차면에 『가슴 아픈 사건』에서 마비되지 않은 인물을 못 박은 ‘가슴 아픈’ 사건이 있다. 이 점 조이스가 신문 기사 제목을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 제목으로 가져온 이유로 이해된다. 서술자를 포함해서 어떤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건』의 구도를 잡는 것은 이제 독자의 몫이다. “구도 잡기 효과”(the effect of framing)는 서술자가 직접 나설 수 없고, 독자의 협동에서 생겨난다(Monterrey 71). 그렇다면 시니코 여사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신문의 모서리와 창문을 투과하는 불빛이 구획 짓는 네모난 구도의 겹 밖으로, 정작 가슴 아픈 당사자의 속사정이 “꼭 끼는 주머니 밖으로 빠져 고개를 내민”(D 113) 『가슴 아픈 사건』의 모양새가 잡힌다. 언론 보도는 객관성을 지향하고 있고, 자로 잰 듯이 살아가는 더피 씨가 풍경을 볼 때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시니코 여사를 신문과 창문의 이중 틀 안에 가두게 되면 『가슴 아픈 사건』이 된다. 가족 제도와 남녀 관계에 이중으로 소외된 시니코 여사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더블린의 안과 밖의 경계라는 점에 상징성을 찾게 된다.

『가슴 아픈 사건』의 더피 씨에게 작가적인 역할을 발견하는 비평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희생된 시니코 여사 살려내기 몫을 기대하고 있다. 작품의 처음에 ‘제임스 더피 씨’로 나오는 양상을 두고 언론 보도에서 지칭하는 “에밀리 시니코 여사”(D 113)와 같은 법적인 ‘사건’을 다루는 맥락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사건』의 작가 조이스와 이름 제임스가 같으며, 주변 사물에 거리감을 두고 작품 초반부터 글쓰기에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작가적인 인물과 동궤로 파악하기도 한다(Saint-Amour & Lawrence 243, 249-50; Ingersoll 125; Benstock 30). 시드니 퍼레이드(Sydney Parade) 역의 부인 사망 기사를 읽고 남편의 부재 증명 내지 책임자 부재를 결론짓는 기사의 추상성과 경직성에 희생된 한 여인의 외로운 삶을 돌아보고 다시 자기 투영의 과정을 겪는 더피 씨에게 글쓰기를 통해서 마비된 의식을 살리는 실천적 행위를 기댈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 중 마지막에 수록된 『죽은 사람들』에 이르러 창문은 앞의 다른 작품에서보다 더 자주 언급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주인공 가브리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면의 세 단계 배경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즉 만찬 연설을

앞두고 부담을 느낄 때(D 192), 연설 직전 창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사람들의 입장에서(D 202), 그리고 거울 앞에 선 그레타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첫 단계는 창문 안쪽의 긴장감에서 시원한 바깥쪽을 향한 도피의 욕구가 가브리엘이 차가운 창틀을 두드리는 모습에 반영된다.

가브리엘의 따뜻한 손이 떨리면서 차가운 창틀을 두드렸다. 바깥은 얼마나 시원할까! 처음에 강변을 걷다가 그 다음에 공원 안을 걸으면 얼마나 상쾌할까! 눈이 [. . .] 덮여 있겠지. 만찬 식탁 자리보다야 얼마나 더 상쾌할까! (D 192)

두 번째 단계에서 창문은 가브리엘의 시선을 안으로 모은다. 즉 눈 덮인 바깥 부두에서 불 켜진 창문을 쳐다보며 음악을 듣고 있을 사람들을 상상하며 곧 자신을 향해 주의가 집중될 부담을 풀어보려 한다.

필경, 바깥 부두에서는 사람들이 눈 속에 서서 불 켜진 창문을 쳐다보며 왈츠 음악을 듣고 있으리라. 거기는 공기가 맑으리라. [. . .]  
가브리엘은 입을 열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 . .]. (D 202)

‘불 켜진 창문’은 사실, 『자매』와 『애러비』, 그리고 배의 창 불빛으로 『에블린』의 상징적인 목표 지점을 가리켰고, 『가슴 아픈 사건』에서 더피 씨와 신문 기사를 매개했던 이미지로 여기에서는 청중과 연사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써 연설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만찬 연설 직전 가브리엘의 부담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아이버스 양(Miss Ivors) 등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구심점에 자신을 놓으면서 상처받은 자의식을 다시 무장시킨다. 창문의 이미지는 『죽은 사람들』에 반복 전개되면서, 그 응시의 방향을 안으로, 자신으로 모으는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서, 부부간의 시선으로 거울을 활용하고 창문의 흐릿한 불빛 투과력을 확장 적용하는 다음의 종합적인 단계로 연결된다.

거리에서 새어 나온 흐릿한 불빛이 창문에서 문까지 긴 빛줄기를 이루며 놓여 있었다. 가브리엘은 [. . .] 방을 가로질러 창문가로 갔다. 감정이 좀 가라앉도록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불빛을 등지고 옷장에 몸을 기댔다. 아내는 모자와 망토를 벗어 놓고 커다란 흔들 거울 앞에 서서 허리의 후

크를 풀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뜸 들이고 나서 말했다.

“그레타!”

그레타는 천천히 거울에서 몸을 떼더니 빛줄기를 따라 이쪽으로 걸음을 떼었다. [. . .]

그레타는 창으로 가 서더니 밖을 내다보았다. (D 216)

이 장면에서 가브리엘은 창밖을 보다가 거울을 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한편, 그레타는 거울에서 창 쪽으로 움직여서 밖을 내다본다. 두 사람의 동선이 만나지 않듯이 시선도 겹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자 거울의 시선으로 내면화되기까지 ‘창문’은 ‘그림’의 단계를 거친다. 사실 가브리엘이 아내에게 성욕을 느낀 감정을 창밖을 보면서 추스르는 동안, 아내는 옛 연인에 관한 추억이 서려있던 창문을 통해 연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그레타는 창에 돌맹이 던지는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뛰어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만나러 온 폐병 걸린 소년을 빗속에 만난 장면을 그려낸다. 돌이켜 보면 파티장의 난간에 서서 그 소년이 즐겨 부르던 노래 오림의 아가씨(“The Lass of Aughrim”)에 귀 기울이는 아내를 남편은 “아련한 음악(Distant Music)”(D 210)이라는 제목까지 붙이면서 네모진 틀에 넣어서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Henke 44). 폭설로 발이 묶여서 호텔로 향하던 길에, 부부가 함께 서서 용광로의 유리 작업을 망이 쳐진 창 건너로 바라보는 장면은 독자 편의 구도 작업에 힘입어 하나의 그림으로 상징된다(Monterrey 70-71). 이런 상상의 구도에서 “창살에 갇히듯 결혼 생활에 감금된 부부”(71)로 틀 짓기보다는 가브리엘과 그레타가 창틀을 공유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하려 한다. 오히려 창틀 너머로 『죽은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의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로 모아주면서 결국 부부간의 이해에 도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인다.

그 배경이 되는 파티의 분위기에 걸맞게 『죽은 사람들』에서는 성과 이름이 분명한 여러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드나든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을 차지하는 하너 릴리(Lily)나 만찬을 주최한 모컨(Morkan) 자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사람들』에서 여성 인물들의 서술과 대화는 전의 작품에서보다 구체적이며 입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비스 양의 예에서 보듯이 인물 형상화도 복잡성을 띠고 나타난다. 여성 인물의 이름으로 작품의 제목을 삼은 『에블린』과 비교해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대사가 부여된 독립적인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시니코

여사의 말이 직접 인용으로 나타난 바 없고 에블린의 갈등과 무력감조차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나온 적 없는 반면, 그레타는 파티 참석자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식과 말을 가지며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죽은 사람들』의 표면에 떠올린다.

가브리엘과 그레타의 주변에 거울의 이미지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점은, 창에서 그림으로 다시 창에서 거울로 전개되는 시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레타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D 216)과 그것을 보고 나서 또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가브리엘의 모습(D 220)은, 『죽은 사람들』의 다른 부분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언급되는 창문의 이미지와 더불어 새로운 비중을 갖게 된다. 우선 거울 앞에 선 그레타는 가브리엘의 오해를 거치기는 하나 그의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벗어난다. 그녀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거울의 사용과 거울을 대하는 그 남편의 억지스럽고 자의식적인 태도 사이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 작가는 처음부터 마비되지 않은 인물 그레타의 존재를 떠오르게 한다. “거울 속으로 흘깃 본 처량하고 한심한 작자로”(D 220) 부끄러움을 알게 될 때 가브리엘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

거울의 언급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진흙』의 마리아와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 여사(Mrs. Mooney)가 자신을 비춰보는 장면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보완하면서 마지막 작품 『죽은 사람들』로 이어진다. 거울의 시선은 창문을 통한 외부 세계를 간접 경험한 인물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됨을 뜻한다. 그리고 마비의 세계를 조망하는 거울 『더블린 사람들』 안에서 창문의 모티프를 통한 탈출의 시도가 전개되고 있음을 독자에게 비추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더블린 사람들』의 막이 내리기 전 창 너머로 수북이 쌓인 눈 속에서 제시된 가브리엘의 비전에서 마이클을 포함하여 가브리엘 자신과 그의 아내 그레타를 다 덮을 눈을 실제로 맞으면서 가브리엘이 서부로의 여행을 떠날지는 영원한 미지수일 것이다. 거울은 창문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으나 실상 투과가 불가능한 막힌 창틀로서 거울 저쪽은 이쪽 면의 반영일 뿐이기에 그렇다.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창문의 모티프는 거울의 이미지와 더불어 마비된 사회의 일상과 일탈을 시도하는 인물의 역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의 독자들에게 더블린의 아이나 여성 인물같이 힘없는 사

람들을 대하는 작가의 관점을 점검할 여지를 제공하며 더블린 사회의 마비의 성격을 재조명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즉 거울과 창문이 합쳐져서 벗어날 수 없는 성격의 마비를 두고 독자의 진단이 요구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물들을 향해 독자에게 다시 보기(alternative perspective)의 관심을 일으킨다”는 비평적 지적이 있다(Vicki & Shashaty 3). 이런 다시 보기의 한 방안으로, 마비된 모습을 창문과 거울을 통해서 시각화한 『더블린 사람들』의 미학적인 공간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체험하면서, 고정되고 경직된 생각 자체를 대상화해 보라는 독자를 향한 주문으로 받아도 좋겠다.

#### IV

『더블린 사람들』의 창문은 다른 세계를 향한 동경 모험의 욕구이면서 인식 폭의 한계와 도피가 어려운 현실을 동시에 드러내는 경계면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약자와 소극적인 인물 주변에 불빛 어린 창문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바람이 들어오며 불빛이 새어나가는 창문을 통하여 밖의 날씨가 안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바깥을 향한 꿈이 내비쳐지기도 한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창문은 흔히 세상을 대하는 창구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는 문이다. 더블린이란 마비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문은 단절과 구획의 공간이다. 사람들의 경직된 의식과 더블린 사회의 감금 상황 너머로 작가가 미학적 거리를 견지하고 지켜본 『더블린 사람들』에서 독자는 조이스의 자의식을 엿본다. 작가와 등장인물 사이의 상징적인 공간-애증의 접점, 반영이며 반사면, 그리고 공간적인 경계의 표지-을 ‘창문’과 ‘거울’의 이미지에서 발견한다.

창문 모티프는 초기 조이스의 단편 소설집 『더블린 사람들』을 작품 세계의 중심점에 놓는다. 이러한 창문과 거울의 이미지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탈출을 염원하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자화상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창문과 거울이 첫 장면에 함께 나오는 『율리시스』의 첫 장에서 하녀의 깨진 거울로서 아일랜드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율리시스』는 원래 『더블린 사람들』에 추가로 수록될 한 편의 단편소설이었다고 한다(Parrinder 251). 이런 근거로 『더블린 사람들』과 『율리시스』를 마주보게 하면, 작가의 분신들인 등

장인물도 더블린으로의 회귀한 배경에서, 결국 작품 속에서 더블린을 떠나지 못하는 인물들에 투영된 작가의 더블린 사랑이 암시된 양상까지 『더블린 사람들』의 구심력을 뒷받침한다.

『더블린 사람들』은 단편이란 장르를 활용해서 개인의 일상을 제시하는 인물 형상화를 구축해 낸다. 더블린 사회의 각 분야를 유형별로 비판, 일상의 무게와 일탈의 욕구를 조망하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조이스 작품 세계를 아울러 공통적인 지리적 공간인 더블린은, 그에게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그러면서도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고국의 도시이다. 어쩌면, 조이스 자신도 더블린을 벗어나 보겠다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지만 멀리서도 『자매』의 아이인 양 불 켜진 창을 통해 마비를 되뇌며 더블린을 바라보았을 법하다. 작가 조이스에겐 사실 더블린을 떠나 유럽에 갔다가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온 실제 경험, 즉 더블린에 관한 애증관계의 체험이 바탕을 이루는 자전적인 요소가 있다. 역설적으로, 더블린을 떠났지만 일생 더블린을 이야기했던 한 사람의 수구초심의 흔적이 『더블린 사람들』에서 창문의 상징성을 끌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문을 열고 길을 나섰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작가적 자의식의 흔적이 『더블린 사람들』에서 창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제목에도 배어 있는 자화상, 그리고 이어서 『율리시스』에서 응시의 시선과 겹쳐진다.

불 켜진 네모난 유리창을 들여다보는 아이의 시선에서부터 창틀을 가볍게 두드리는 눈 내리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더블린 사람들』의 창문 이미지는 더블린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인식에 지배적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창문과 거울을 통해 사물을 응시하는 인물들은 역동적인 과정을 순간 포착해서 정지화면으로 잡아내곤 한다(Conrad & Osteen 70). 작가가 ‘귀하고도 천한 더블린(dear dirty Dublin)’을 마비의 도시로 설정하고, 더블린 사회 속속들이 퍼져있는 부패의 냄새를 느끼도록 구상한 이 단편 소설집에서, 창문은 더블린 사람들의 탈출의 욕망과 좌절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주요한 장면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결국 연인을 포기하고 딸 노릇에 잡히는 에블린이나, 에밀리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내요 어머니로서 시니코 여사로 통용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묶여서 회생을 택하는 인물의 탈출기와 그 좌절까지 내다보는 복선으로 작용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 구성을 통해 이를테면 의지와 현실을 구획짓는 경계

선에서 결국 실패와 좌절로 스러지는 탈출구 찾기의 사회적 운명을 바로 이 창문의 모티프가 암시한다. 창문의 복선은 「자매」의 ‘불 켜진 네모난 유리창’ 너머로, 「애러비」의 창가-문간의 한계를 짚고, 「에블린」을 선창 건너편 난간에 읊아매며, 「가슴 아픈 사진」을 제도권의 창틀에 고정시키고, 창밖의 눈으로 「죽은 사람들」을 덮는다. 마비의 주제가 제목으로 응집된 「죽은 사람들」의 끝에서 잠으로 빠져드는 가브리엘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Stephen)처럼 유럽행을 시도할지, 아니면 다시 『더블린 사람들』의 처음으로 회귀해서 「자매」의 아이처럼 창문 너머 마비를 대하게 될지 작품의 결말은 열려 있다.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 읽는다고 해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반영의 시선과 만나게 된다. 창문 너머로 다시 죽음을 대하든 과거를 회상하든 내면화의 방향은 「죽은 사람들」에서 만찬 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의 시선에 이미 예견되어 있다. 창문과 거울의 이미지가 합쳐져 더블린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마비 의식 자체를 인식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창문과 거울은 사실적이고 일상적이면서도, 더블린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마비의 주제를 여러 등장인물의 의식 깊은 곳에서 끌어내면서 그들의 어려운 탈출 시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사회적인 한계를 암시하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더블린 사람들』의 창 너머 더블린 사람들을 엮어매고 있는 사회 문화 의식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틀 잡기 작업은 더블린 사회의 거울로서 『더블린 사람들』을 내놓은 조이스가 독자에게 바라는 욕망일 수도 있다. 『더블린 사람들』을 작가와 독자 사이의 창틀에 넣으면서, 도덕적으로 마비 상태에 놓인 더블린의 “정신적인 해방(spiritual liberation)”(SL 88)의 기운을 창문과 거울의 연결 고리에서 감지해 본다.

(안양대)



## 인용문헌

- 민태운. 『더블린 사람들』에서 보이는 일상 속의 전쟁. 『제임스 조이스 저널』 18.1 (2012): 23-42.
- 제임스 조이스 저. 이종일 역. 『더블린 사람들』. *Dubliners* by James Joyce. 세계문학전집 307. 서울: 민음사, 2012.
- Benstock, Bernard. *Narrative Con/Texts in "Dubliners."* Chicago: U of Illinois Press, 1994.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P, 1960.
- Conrad, Kathryn, and Mark Osteen. "Lighted Squares."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 Vicki Mahaffey. Syracuse: Syracuse UP, 2012. 69-88.
- Henke, Suzette.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P, 1996.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Press, 1969.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75.
- Mahaffey, Vicki, ed.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Syracuse: Syracuse UP, 2012.
- \_\_\_\_\_, and Jill Shashaty. "Introduction."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 Vicky Mahaffey. Syracuse: Syracuse UP, 2012. 1-22.
- Marsh, Sara. "Consumption, Was it?": The Tuberculosis Epidemic and Joyce's "The Dead." *New Hibernia Reviews* 15.1 (2011): 107-22.
- Montterrey, Tomás. "Framed Images as Counterpoints in James Joyce's 'The Dead.'" *Atlantis: Journal of the Spanish Association of Anglo-American Studies* 33.2 (2011): 61-74.

- Parrinder, Patrick. "Dubliners." Ed. Harold Bloom. *James Joyce*. Modern Critical Views. NY: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245-74.
- Saint-Amour, K., and Karen R. Lawrence. "Reopening 'A Painful Case.'"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 Vicki Mahaffey. Syracuse: Syracuse UP, 2012. 238-60.
- Salvagno, Chiara. "Mapping Dublin in James Joyce's *Dubliners*: Dublin, a Static and Timeless Environment: a Text Narrative." Diss. Università degli Studi di Padova, 2013.
- Schneider, Ulrich. "Titles in *Dubliners*."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Ed. Rosa M. Bollettieri Bosinelli and Harold F. Mosher, Jr. Lexington: U of Kentucky P, 1998. 195-205.
- Williams, Keith. "Short Cuts of Hibernian Metropolis: Cinematic Strategies in *Dubliners*."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the Lilliput P, 2004. 154-67.
- Williams, Trevor. "Resistance to Paralysis in *Dubliners*." *MFS* 35.3 (1989): 437-58.

**Abstract****Symbolism of Windows and Mirrors  
in Joyce's *Dubliners***

Seunghee Sone

James Joyce employs windows as a leitmotif to elicit the theme of paralysis in various contexts in *Dubliners*. The lighted window supposes darkness as background and its square shape visualizes the frame of consciousness paralyzed in the society. Windows and mirrors manifest the desire of Dubliners to escape from the wasteland of Dublin, and their awareness of the difficulty of crossing the line. Windows, in contrast to doors, imply a passive and indirect escape.

Windows provide a literal and figurative in-between boundary space framing an observer's view in *Dubliners*. Windows expose an outlet to child characters in "The Sisters" and "Araby." However, in "Eveline," an adolescent story, they suggest a borderline between the female character's hard times and adventurous future, rather than a real escape through a door. Moreover, windows, along with a newspaper, function as an interpretative frame through which to look into Mrs. Sinico's life and death in "A Painful Case." "The Dead," as a coda, recapitulates the theme of windows and mirrors as they reflect and refract the gazes between Gabriel and Gretta Conroy. *Dubliners* can be seen as a mirror that invites a gaze of self-reflection from the reader.

Joyce's symbolic deployment of these literary devices, starting with "the lighted square of window," offers an appealing introduction to his self-conscious fictional world. The windows and mirrors in this short story cycle explore Joyce's cyclical and cynical view of 'dear dirty Dublin.' The escape from Dublin is expected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ut *Ulysses* seems to be strictly confined to Dublin.

■ Key words : windows and mirrors, windows vs. doors, framing, paralysis, desire to escape, *Dubliners*  
(창문과 거울, 창/문, 틀[구도] 잡기, 마비, 탈출 염원, 『더블린 사람들』)

논문접수: 2013년 12월 18일

논문심사: 2013년 12월 19일

게재확정: 2013년 12월 20일